

전후일본문학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의 ‘섬’*

- 야쿠시마(屋久島)를 중심으로 -

최은경**
rika55@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3.2 경계의 섬-야쿠시마 |
| 2. 선행연구 검토 | 3.3 전후의 섬-야쿠시마 |
| 3. 헤테로토피아의 섬 | 4. 나오는 말 |
| 3.1 육지의 섬-달랏 | |

主題語: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섬(island), 뜬구름(Ukigumo), 야쿠시마(Yakushima), 달랏(Darat), 전쟁(War)

1.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영화(감독 류승완)로도 제작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군함도」¹⁾는 일본의 섬에서 가져온 제목이다. 섬전체가 일본 해군의 전함과 비슷하게 생긴 것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2015년 7월 유네스코에 등록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의 한 곳이다. 일본에게 군함도는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의 시설(탄광, 철강, 조선업에 관한 문화유산)이자 근대화의 유산으로 정의되는 곳이다. 실제 19세기이후 군함도는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는 등 채광업을 통해 번영을 누렸다. 이후 1974년 폐산으로 무인도가 되기 전까지 완벽한 도시기능을 갖춘 동경의 섬이었다. 한편 우리에게도 그곳은 역사적 관련이 깊은 섬으로, 일제 강점기의 800여명의 젊은이가 강제 징용되어 가혹한 노역으로 죽어간 지옥의 섬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이처럼 하나의 섬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시선은 정반대로 어긋난다. 물론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처지가 같을 수 없으며 경험과 기억(역사)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혀둔다.
(2017S1A5B5A07058746)

** 동아대학교 특별연구원

1) 통칭 군칸지마(軍艦島, 長崎県長崎市)소재의 하시마(端島)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흔히 고립과 단절 혹은 이상향 등으로 인상지어지는 ‘섬’의 함의이며, 장소적 표상과 시대와 주체에 따라 변용되는 ‘섬’의 역할이다.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징이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탄생시켜 왔다. 흔히 일본을 열도(列島)라 일컫는 것은 길게 줄 선 여러 섬들의 국토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후’라는 큰 역사적 전환기에 표상되는 ‘섬’이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섬이란 공간에서 무엇을 구현하고 의도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후의 문학적 공간으로 등장한 ‘섬’의 역할 또한 부상되어 올 것이며 아울러 일본에게 있어서 ‘섬’의 상징적 의미와 속성이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1905~1951 이후 하야시로 약칭)의 『뜬구름(浮雲)』(『風雪』 1949년 11월~50년 8월, 『文学界』 1950년 9월~51년 4월 연재, 1951년 단행본 발행)을 주요 텍스트로 하면서, 작가가 『뜬구름』을 위해 취재했던 「야쿠시마기행(屋久島紀行)」(『主婦の友』 1950년 7월호)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하겠다.

작가 하야시는 태평양전쟁 때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북만주, 조선, 남방(南方)등에서 중군 보도반원으로 활약했으며 당시의 경험은 『뜬구름』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의 안팎에서 직접 전쟁을 목격한 작가에게 패전과 그 이후는 좀 더 특별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일찍이 세계 여행²⁾을 통해 외부를 발견했던 작가이기에 『뜬구름』은 하야시의 전후 의식마저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뜬구름』은 『방랑기(放浪記)』(1930)와 더불어 하야시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으로 그녀를 근대 대표 여성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장편이다. 하야시문학에서의 ‘부유(浮流)하는 여성의 삶’은 『뜬구름』 연구에서도 주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즉, 여주인공 유키코의 불행한 삶을 중심으로 여자가 전략해 갈 수 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상을 고찰해 가는 논문이 다수 보인다.

2) 하야시는 1930년 『방랑기』가 단행본으로 발행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약 인기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하야시는 그 인세로 중국, 만주를 여행하고 이듬해는 시베리아 경유로 혼자서 유럽을 여행하며 파리에 체재하기도 했다.

하야시문학에 관하여 후쿠다 다마미(福田珠己)³⁾는 “언제나 insideness와 outsideness가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여기에서의 ‘insideness와 outsideness’는 작품에 따라 중의적인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전쟁을 둘러싸고 인도차이나와 일본의 이곳저곳이 교차하듯이 그려지고 있다. 국내와 국외, 혹은 본거지 도쿄와 그 외부로 구분되는 공간은 인물의 심리와 삶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즉 ‘insideness와 outsideness’는 공간의 내외부는 물론, 인물의 내외면적, 혹은 사회제도 안팎의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주목한 섬(야쿠시마)에 관해서 마키노 요코(牧野陽子)⁴⁾는 원시림이 울창한 자연환경이 “일본의 근원적인 자연의 모습”에 가깝다고 언급하면서 전후의 파탄되고 모순된 현실을 야쿠시마라는 “자연과의 일체감”이 강조된 곳을 통해서 “카타르시스와 구제”를 그리려고 했다고 해석한다. 한편 하네야 미즈키(羽矢みずき)⁵⁾는 ‘인도차이나’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상실하고 야쿠시마로 간 도미오카와 유키코에게서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야쿠시마가 “양의성을 가진 장소”로 정의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종말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으로 풀이한다. 나이토 다카시(内藤高)⁶⁾도 작품에 등장한 ‘섬’이라는 공간이 “예상이상으로 죽음과 재생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패전으로 인해 “공간적인 확대가 끝난 시대에 나무와 비(하늘과 연결된)라는 수직축의 레벨로 신화적 세계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야쿠시마에 관하여 언급된 논문은 다수의 논문 중에서도 몇 편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부분 언급에 그치고 있다. 즉, 단독으로 ‘섬’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해 간 논문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에 들어서는 문학 공간 ‘섬’에 주목한 논문은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일본전후문학에 나타나 있는 ‘섬’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뜯구름』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상적 공간으로 상기되는 ‘섬’의 특성과 역할을 해독해 가려고 한다.

3) 福田珠己(1991)「場所の経験：林芙美子『放浪記』を中心として」『人文地理43-4』人文地理学会, pp.269-281

4) 牧野陽子(2002)「熱帯の幻影—林芙美子『浮雲』について—一屋久島、仏領インドシナ戦後日本—」『成城大学経済研究』第158号、成城大学経済学会, p.434

5) 羽矢みずき(2005)「<虚無>からの再生を求めて—林芙美子『浮雲』論Ⅱ」『日本文学論叢』第五号、立教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日本文学専攻, pp.109-110

6) 内藤高(2005)「トポスとしての島」『大阪大学大学院研究科紀要』45号, p.17

3. 헤테로토피아의 섬

3.1 육지의 섬-달랏7)

『뜬구름』은 태평양전쟁 중 군속 타이피스트로 인도차이나(베트남)로 건너간 고다 유키코(幸田ゆき子)가 전쟁이 끝난 후 인양선을 타고 귀환되는 상황으로 시작된다. 유키코는 인도차이나의 농림연구소에서 유부남 도미오카(富岡)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외지에서 보낸다. 하지만 패전 후 두 사람은 초라한 귀환자의 모습으로 초토화된 조국으로 뿔뿔이 돌아오게 된다.

남방(南方)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겨울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유키코를 주위의 사람들이 힐긋힐긋 훑쳐보고 있다. 유키코는 기대어선 채 너무 패전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워서인지 모든 사람의 얼굴에 생기 있는 혈색을 찾아볼 수 없다. 힘없는 얼굴이 좁은 열차 안에 겹쳐져 있다. 노예를 실은 열차와 같은 기분도 들었다. 유키코는 또 조금씩 그런 얼굴에서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일본은 어떻게 되어 갈까……. 큰 환송의 물결 속에 보낸 병사의 얼굴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어두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하(山河)에도 피곤한 흔적이 스며든 모습만이 쭉 이어져 있었다. (뜬구름-2)⁸⁾

南方から引揚げらしい、冬支度でないゆき子を見て、四圍の人達がじろじろゆき子を盗見してゐる。如何にも敗戦の形相だと、ゆき子もまた立って揉まれながら、四圍を眺めてみた。夜のせい、どの顔にも氣力がなく、どの顔にも血色がない。抵抗のない顔が狭い列車のなかに、重なりあつてゐる。奴隷列車のやうな氣もした。ゆき子はまた、少しずつこの顔から不安な反射を受けた。日本はどんな風になつてしまつたのだろう……。旗の波に送られた、かつての兵士の顔も、いまは何処にもない。暗い車窓の山河にも、疲労の跡のすさまじい形相だけが、るいていと連なつてゐた。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 하야시는 1942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육군보도반원으로서 남방(자바섬, 보르네오섬 등)에 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경험은 본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구성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뜬구름』의 여주인공 유키코는 스물 두 살의 1943년 가을, 형부동생 이바 스기오(伊庭杉夫)의 성폭행과 이후 3년에 걸친 불륜관계를 정리하

7) 이 장은 「하야시 후미코 『뜬구름』론-표상으로서의 공간」(2009)『일본어문학』, pp.437-456을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다.

8) 원문인용은 『林芙美子全集第8巻』(文泉堂, 1977)에 따랐다. 괄호 안은 작품명과 본문의 각 장을 나타내며, 한국어번역은 논문작성자임을 밝혀둔다. 이하동일

고자 자진하여 인도차이나로 건너갔다. 그리고 1945년 겨울 후쿠이현(福井県) 쓰루가(敦賀)항을 통해 다시 일본으로 귀환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녀는 겨울임에도 따뜻한 남쪽 나라 행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둔해진 계절감과 함께 몇 년간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며 남방(南方)의 일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녀의 상황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늙은 노모와 아내를 두고 일본점령지의 산림기사로 파견되었던 도미오카는 유키코에 앞서 귀국한 터였다. 그러나 패전한 일본은 그에게 전문적인 직업을 살릴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겨울의 추위에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귀환자에게 전후의 시간은 전쟁보다 더욱 가혹한 것이 되고 있었다. 이런 도미오카와 유키코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달랏에서의 “화려한 추억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며 환영같은 기억에 위로받고 피곤한 현실을 견딘다.

고원인 달랏의 거리는 유키코의 눈에는 하늘에 비친 신기루처럼 보였다. 람비엔산을 배경으로 호수를 앞에 둔 달랏의 구릉 마을은 유키코의 불안과 공상을 모조리 없애주었다. (뜬구름-6)

高原のダラットの街は、ゆき子の眼には空に写る蜃気楼しんきろうのやうにも見えた。ランビアン山を背景にして、湖を前にしたダラットの段丘の街はゆき子の不安や空想を根こそぎくつがへしてくれた。

람비엔고원에 있는 프랑스인의 주택에서 새는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 색채와 냄새가, 비싼 향수처럼 훅하고 유키코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사과와 노래와 비의 블루스와 같은 빈약한 환경은 아니다. (중략) 이 지구상에 그런 낙원이 분명 있다는 것을 일본인 아무도 모를 테지..... (중략) 사이공에서 250킬로 떨어진 람비엔 고원은 마치 유희처럼 아름다웠다. (중략) 타인에 대한 험악한 시선에 훈련되어 있는 일본인의 어둔 생활이 람비엔의 낙원에 있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인종으로 보였다. 유키코는 람비엔에서 생활할 작정이어서 먼 일본이 마음속에서는 다른 민족처럼 느껴졌다. (뜬구름-36)

ランビアン高原の仏蘭西人の住宅からmeler、人の声や音楽、色彩や匂ひが、高価な香水のやうに、くうつと、ゆき子の心を掠かすめた。林檎の唄や、雨のブルースのやうな貧弱な環境ではないのだ。(中略)此の地球の上に、あのやうな樂園がちやんとある事を、日本人の誰もが知らないのであらう……。 (中略)サイゴンから二百五十キロのランビ안의高原は、さながら油絵のやうに美しかったものだ。(中略)他人を見る眼のとげとげしさに訓練させられてゐる日本人の生活の暗さが、ランビ안의樂園にある時は、何とも不思議な人種に見えて、ゆき子は、生涯をランビアンに暮すつもりで、日本の遠さを、心のうちではよその民族を見るやうな思ひでもめた。

남녀주인공에게 있어서 주된 추억의 공간은 구체적으로 인도차이나의 달랏을 가르킨다. 달랏에 관하여 『뜬구름』에서는 “해발 고도 1600m 정도로 기온도 최고 25도, 최저 6도 정도의

고원지대”라고 서술하며 “대단히 살기 좋은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령인 탓에 프랑스어가 넘나드는 환경은 주재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지극히 이국적이며 신비로움마저 자아내게 한다. 당시 일본은 개전으로부터 2년이 지나자 전쟁의 국면이 차츰 열세로 돌아서고 있었다. 궁핍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지만 일본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달랏은 마치 전쟁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평온하기까지 했다. 산림사무소의 마키타(牧田)소장은 새로 온 유키코에게 “일본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있으니 극락같죠?”라며 일본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마키타소장의 “극락”이라는 표현처럼 유키코 역시도 낮은 땅 달랏을 “신기루” 혹은 “낙원”으로 정의하며, 이전의 생활과는 다른 여유로운 환경에 낯센과 동시에 적잖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달랏이라는 공간은 적어도 그곳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현실화된 이상향의 장소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⁹⁾’로 위치하게 된다. 바깥은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도 달랏은 “유화처럼 아름다”운 감춰진 지상낙원으로 자리매김된다. 즉, 달랏은 일종의 육지 속 ‘섬’과 같은 공간으로 바깥 세상과는 격리되고 구분되는 것이다.

유키코는 불륜관계를 정리하고자 타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운명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달랏은 더욱 강렬하게 꿈의 공간으로 인상지어진다. 반면, 농림성소속의 기술자(技官)였던 도미오키는 전쟁에 필요한 연료를 위해 베트남의 식생(植生) 연구로 달랏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도미오키는 “군인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곳에서 여자와 둘이서 시시덕거리고 있던 당시”를 “미친 일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산림기사로 살 수 있었던 대삼림속에서의 시간을 “꿈같은 이야기”로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이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 파견되어 간 곳이었지만 두 사람은 각각 현실 속의 ‘이상향’과도 같은 시공간을 체험하고 왔기에 그때의 “꿈과 환상”을 쉽게 잘라버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도미오키는 이러한 너저분한 패전하의 일본에서 아득비득 힘들게 살아갈 기분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야성의 외침 같은 것일까. 시종 가슴속에서 왕래하고 있었다. /예수 고향이 원래 나사렛인 것처럼 도미오키는 자신의 혼의 고향이 저 대삼림인 듯 때때로 향수에 젖을 때가 있다. (뜬구름-14)

富岡にしたところで、かうしたごみごみした敗戦下の日本で、あくせく息を切らして暮す気はしないのである。野性の呼び声のやうなものが、始終胸のなかに去来してゐた。イエスの故

9) 현대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유토피아’의 대비되는 공간으로 창안한 것이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이다. 완벽한 세계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반하는 가치를 갖는 세계이나 실제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정의한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일종의 현실화된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장소들의 바깥에 있는 곳을 의미한다. 미셸 푸코, 이상길 역(2014)『헤테로토피아』문학과 지성사, p.47참조

郷が本来はナザレであるやうに、富岡は、自分の魂の故郷があの大森林なのだと、時々恋のやうに郷愁に誘はれる時がある。

개펄의 진흙 속에 마치 닳을 짜 맞춘 듯한 홍수림의 경관이 갑자기 기억 속에 화려하게 떠올랐다. 반짝 반짝 하늘에 빛나는 끈끈한 잎, 줄기를 지탱하는 문어와 같은 잔뿌리의 홍수림의 벽이 하이퐁에서도, 사이공에서도 항만 입구로 이어져 있었다. 벨벳과 같은 그 수림지대를 도미오카는 잊을 수가 없었다. 다시 한 번 남방으로 가고 싶다. (뜬구름-18)

干潟ひがたの泥土の中に、まるで錨いかりを組みあはせたやうな紅樹林の景觀が、どつと思ひ出の中から色あざやかに浮んで来る。ぎらぎらと天日に輝く油っこい葉、幹を支へる蛸たこのやうな枝根の紅樹林の壁が、海防でも、サイゴンでも港湾の入口につらなつてゐた。ビロードのやうなその樹林の帯を、富岡は忘れる事が出来なかつた。もう一度、南方へ行つてみたい。

위에서 보듯이 도미오카는 다시 인도차이나의 대삼림으로 가고 싶다고 절실히 희망하며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척박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유키코가 달랏을 ‘낙원’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름다운 환경과 함께 그곳에서 도미오카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지만, 도미오카에게 달랏은 직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혼의 고향”으로서 내재되는 것이다. 그런 도미오카에게 어렵사리 외딴 섬 야쿠시마(屋久島)의 산림기사 일이 들어온다. 그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으로 대표되는 야쿠시마에 달랏과 같은 대삼림의 이미지를 투영시키며 기다렸다는 듯이 발령지로 떠나게 된다. 유키코도 다시금 이바(伊庭)의 그늘을 벗어나 자진해서 도미오카를 따라 야쿠시마로 간다. ‘신기루’ 혹은 ‘이상향’과도 같았던 달랏을 경험한 그들에게 일본본토에서 가장 먼, 아울러 바깥세상과는 가장 가까운 외딴섬 야쿠시마는 과연 제2의 달랏을 재현시켜 줄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추적해 가기로 하겠다.

3.2 경계의 섬-야쿠시마¹⁰⁾

전술했듯이 『뜬구름』의 남녀주인공은 패전으로 인해 인도차이나에서 어쩔 수 없이 귀국

10) 야쿠시마는 태평양과 동중국해의 경계에 있으며 열대와 온대가 교차하는 섬이다. 면적 약107km²로 규슈(九州) 남단 가고시마현(鹿児島県)에 있으며 면적순으로는 9번째 섬이다. 무엇보다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섬으로 유명하다. 특히 야쿠삼나무 자생림(屋久杉自生林)등 천 년이 넘는 삼나무 숲이 있어서 현재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1800m이상의 봉우리가 6개나 솟아 있고 깊은 골짜기 등으로 생태지리학적으로 가치가 높다. 작가의 취재에 의하면 “오른쪽은 우뚝 솟은 남화풍의 산이 이어지고 높은 산은 1960미터”나 된다고 한다. 또한 표고도 700미터 부근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16도로 내려가서 3월까지 눈이 쌓여있다고 한다. (「야쿠시마기행」중에서)

한 처지였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초토화된 도쿄의 현실과 2년여의 부재가 가져온 생활의 부적응, 그로 인한 피로감이었다. 유키코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을 살리기는커녕 길에서 우연히 만난 ‘쵸’라는 미군의 매춘부(팡팡 판판)로 전락해 간다. 이러한 상황은 유키코만의 불행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여성귀환자들도 비슷한 처지로, 술집여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어려운 생활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후 유키코는 도미오카와 안이하게 동반자살까지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바에게 다시 의지하게 된다. 그녀는 이바의 정부(情婦)가 되어 표면적으로는 한동안 윤택한 생활을 한다.

한편, 도미오카는 귀환 후 새롭게 목재사업을 벌이기도 했으나 실패하고 무일푼의 신세가 된다. 여전히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어렵사리 인도차이나의 체험을 소재로 문필활동을 하며 근근이 생활을 꾸려간다. 이처럼 제각각 힘겹게 패전의 시간을 견디고 있던 두 사람은 도미오카가 죽은 아내의 장례비를 변동하려고 유키코를 찾아가면서 재회하게 된다. 두 사람은 달랠에서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한 채 함께했던 시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복원되어 간다. 두 사람이 이후 다시금 달랠의 환영으로 합몰되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 사람에게 일본에서의 현실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은 달랠을 서로 공유하고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달랠은 계속되는 전쟁의 포화 속에 마치 “극락”과도 같았기에 두 사람에게 되찾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이상향’으로 정의되어 가는 것이다.

그 때 용기를 낸 것은 유키코였다. 그녀는 이바가 몸담고 있던 사이비교단의 금고에서 거금을 훔쳐 마침 도미오카가 발령받은 야쿠시마로 함께 떠나게 된다. 일단 두 사람은 목적지 야쿠시마가 이바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안도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랠과 너무 다른 일본의 환경에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두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패전의 음영으로 숨막히는 도쿄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래의 인용문은 두 사람에게 야쿠시마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엿보게 한다.

여러 가지 차질 속에 도미오카는 자신 한 몸을 간수하기도 어려웠다. 다른 인간으로서 재출발하기에는 다시 한 번, 어딘가로 장소를 옮겨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수동적인 고뇌 속에 자신과 사회의 어긋남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저기 회전하는 벨트의 속도로, 도미오카 곁을 세상은 떠내려가고 있었다. (뜯구름-56)

いろんな齟齬のうちに、富岡は、自分の軀からだをもてあましてしまつてゐる。別の人間として、再出発するには、もう一度、何処かへ場所を変つ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いつも、

受動的な悩みのなかに、自分と社会とのずれを感じてゐた。西も東も、廻転するベルトの速さで、富岡の耳のそばを、社会は押し流されてゐた。

두 사람은 지쳐있었지만, 곧 가고시마행으로 갈아탔다. 더욱 지쳐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렸으면 했다. 유키코는 조금씩 불안해져 왔다. 밤비는 빛나며 더러워진 유리창에 내리고 있었다. 유키코는 몇 번이나 도막도막의 꿈을 꿔다. 사이공에서 지린을 거쳐서 람비엔 고원으로 달랏으로 향하는 자동차의 동요를 느꼈다. (뜬구름-57)

二人は疲れてゐたが、すぐ、鹿児島行きに乗り替へた。もつと疲れ切つて、何も彼も麻痺まひしてしまひたかつた。ゆき子は、少しづつ心細くなつて来てゐる。夜の雨は、光つて、汚れた硝子窓に降り込めてゐる。ゆき子は、幾度も切れ切れの夢を見たが、サイゴンから、ヂリンを経て、ランビアン高原へ行くダラットへの自動車の動揺を感じてゐた。

상기에서 보듯이 도미오카도 유키코도 심신의 피로가 역력하며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재출발”하는 장소로 때마침 야쿠시마가 두 사람 앞에 다가온 것이다. 여기서 야쿠시마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일본본토와 떨어진 외딴 ‘섬’이라는 공간이 주효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섬’은 이전부터 문학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에도 인문예술 분야에 있어서 모방되고 반복 인용되어 가며 작품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근대 이후 문학에서 ‘섬’은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년)에서 묘사된 공상의 섬에서 연유한 것으로, 말하자면 u(없다)+topia(장소)가 표상하는, 즉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이며 환상적 공간을 의미해 왔다. 물론 문학에서 ‘섬’이 유토피아로서만 기능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향의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적 경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뜬구름』의 ‘야쿠시마’는 ‘달랏’과 마찬가지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섬)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작품 속 남녀주인공은 인도차이나에서 귀환해 온 자들로, 전쟁 중 행복했던 달랏을 잊지 못하고 피폐한 삶 속에서 환영처럼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한 환영은 패전하의 삭막하고 비참한 생활을 더욱 부각시키며 달랏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고 꿈꾸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사람 모두 달랏을 동경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도미오카는 달랏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자연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거”라고 말한다. 산림기사인 도미오카는 달랏의 환경에 매료되었고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귀국 후에도 그런 직업을 살릴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그러던

차에 야쿠시마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다. 야쿠시마야말로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춘 곳이다. 본문에서 도미오카는 다네가시마(種子島)에서 야쿠시마로 향하는 배안에서 “오랜만에 섬의 짙은 녹색을 바라보니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도미오카가 야쿠시마에 달랏에서와 같은 인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유키코에게 달랏이 낙원으로 구조화되는 것은 평범한 자신이 남자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도미오카에게 사랑받으며 사랑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키코는 야쿠시마로 가는 도중에 몇 번이나 달랏으로 가는 꿈을 꾸다. 외딴 섬으로 가는 불안함 속에서도 마치 타국의 달랏으로 향하는 그때의 기분에 닮은 묘한 동요를 기억해 내는 것이다. 이렇듯 야쿠시마로 향하는 두 사람은 각자 이상화된 제2의 달랏을 꿈꾸며 미지의 섬에 일본의 내지와는 다른 ‘재출발’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때 현실의 공간 야쿠시마는 ‘헤테로토피아’의 섬으로 이미지화 된다. 그렇다면 과연 야쿠시마는 달랏과 비슷한 환경의 공간으로 부조될 수 있을까?

작가 하야시는 『뜯구름』연재 중 1950년 4월에 야쿠시마로 취재여행을 떠난다. 이것은 「야쿠시마기행」¹¹⁾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뜯구름』과 함께 작가의 취재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야쿠시마를 탐구해 가겠다. 먼저 섬의 환경적 지형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치 무인도처럼 느껴졌다. 친구는 야쿠시마는 영림서(營林署)만으로 보존되고 있는 섬으로, 인정은 순박하나 한 달 내내 비가 계속 내리는 섬이라서 각오가 필요하다고 웃으면서 말했다.(뜯구름-54)

まるで、無人島のやうな気がした。友人は、屋久島は、営林署だけで保つてゐるやうな島だが、人情は純朴で、一ヶ月は雨の降りつゞいてゐる島だが、覚悟が出来るかいと笑つて云つた。

“하, 한 달, 거의 비예요. 야쿠시마는 한 달 중 35일은 비라고 할 정도니까요…….”(뜯구름-60)

「はア、一ヶ月、ほとんど雨ですな。屋久島は月のうち、三十五日は雨といふ位でございますからね……」

위와 같이 야쿠시마는 무엇보다 비가 잦은 곳으로 강조되어 “각오가 필요”할 만큼의 안내를 요하는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야시는 「야쿠시마기행」에서도 “한 달 30일은 비”라고 적고 있다. 사실 야쿠시마는 일본에서 가장 강우량이 많은 지역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아열대성

11) 1950년 4월 13일 급행 2등석으로 도쿄를 떠나 모지(門司)에서 1박을 하고 나가사키(長崎)에서 1주일 정도 머물며 아마쿠사(天草), 구마모토(熊本)를 지나 가고시마(鹿児島)에 도착한 것이 4월 22일이었다. 고향 때문에 다네가시마(種子島)를 거쳐 겨우 28일이 되어서야 야쿠시마에 도착하게 된다. 당시 감기기운으로 고생한 하야시가 야쿠시마에 머문 시간은 고작 이틀 남짓이었다.

기상은 섬의 지형적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외부(달랏)를 경험한 유키코와 도미오카에게는 낯선 환경이 오히려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을 갖게도 한다. 또한 그들에게 야쿠시마가 특별한 수밖엔 없는 이유는 다음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야쿠시마는 가장 남단의 섬이고 국경이기도 하다. 다네가시마에서 야쿠시마가 보일 때에는 이 근처의 환초도 따뜻한 해풍에 물들어 있을 것이다. 멋진 항구는 없다고 해도 나는 어떤 문명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단의 섬을 향해서 신비한 것만은 공상하는 것은 확실했다. 전쟁 때 나는 보르네오와 말레이와 수마트라와 자바섬으로 여행한 적이 있었다. 같은 후조의 흐름에 떠 있는 야쿠시마를 향해서 나는 오로지 그 섬 그림자에 마음이 급해져서 몹시 기다려지는 것이었다.¹²⁾ (야쿠시마기행)

現在の日本では、屋久島は、一番南のはづれの島であり、國境でもある。種子島をり、屋久島が見える頃には、このあたりの環礁も、なまあたゝか海風に染められてゐるであらう。すばらしい港はないとしても、私は何も文明的なものを望んでゐるわけではないが、南端の島に向つて、神祕なものだけは空想してゐるのはたしかだつた。戦争の頃、私は、ボルネオや、馬來や、スマトラや、ジャワへ旅したことがあつた、その同じ黒潮の流れに浮いた屋久島に向つて、私はひたすらその島影に心が走り、待ち遠しくもあるのだつた。

이 쾌적한 배는 야쿠시마까지의 항로로, 그 이상은 이번 전쟁으로 경계가 정해져 버렸던 것이다. 이 배는 야쿠시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뜬구름-58)

この快適な船は、屋久島までの航路で、それ以上は、今度の戦争で境界をきめられてしまつてゐるのだ。此の船は、屋久島から向うへは、一步も出て行けない。

『뜬구름』에서 야쿠시마는 도쿄를 떠나 기차로 며칠을 달려서 또 다시 몇 번이나 배로 갈아 타고 가는 곳으로, 이것은 섬이 일본의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난 곳인가를 환기시키며 동시에 밖(외부)과의 인접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야쿠시마는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외딴섬으로, 이러한 위치적 고립과 단절의 이미지는 일본본토와는 이질적 세계로 부각시킨다. 즉, 지형적 환경적 특징에서 오는 이국적 정서는 ‘섬’의 외부와는 차별된 세계로 부조되는 것이다. 당시는 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沖縄)와 아미미제도(奄美諸島)가 미국 통치하에 들어간 까닭으로 야쿠시마가 국경이자 일본 최남단의 섬이 된다. 작가 역시 이러한 경계의 섬으로서의 지형적 역할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엇보다 남쪽 끝에 위치한

12) 원문인용은 『林芙美子全集第16巻』(文泉堂, 1977)에 따랐다. 괄호 안은 작품명을 나타내며 한국어번역은 논문작성자임을 밝혀둔다. 이하동일.

야쿠시마는 유키코와 도미오카가 그토록 동경하던 남방(南方), 즉 “신비한” 달랠로서의 지향(志向)을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키코는 드보르작의 ‘신세계’라는 곡은 이미 잊어버렸지만, ‘신세계’라는 단어만은 귀에 강하게 남았다. 자신들의 새로운 출발을 점쳐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유키코는 히카의 청순한 태도에 호의와 존경을 가졌다. (뜬구름-59)

ゆき子は、ドヴォルザークの「新世界」の曲は、もう忘れてしまつたが、「新世界」といふ言葉だけが、耳に強く残つてゐた。自分達の新しい出発を占つて貰つたやうな気がして、ゆき子は比嘉の初々うひうひしい態度に、好意と尊敬を持つた。

유키코는 야쿠시마로 가는 긴 여정에 그간의 노고와 피로가 겹쳐져 병을 얻고 만다. 유키코의 호전되지 않는 병세로 인해 두 사람은 발이 묶여서 며칠 가고시마(鹿児島)에 머물며 의사 히카(比嘉)의 진찰을 받게 된다. 본문에서 히카는 환자인 유키코 뿐만 아니라 도미오카도 매료될 정도로 친절하고 인상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런 히카를 통해 유키코는 우연히 ‘신세계(新世界)’라는 곡을 접하고 ‘신세계’에 매료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신세계’라는 단어의 울림에 자신들이 향하는 야쿠시마를 오버랩시키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두 사람은 미지의 야쿠시마를 “재출발”의 적격의 장소로 의미화하며 새로운 세계가 구축되는 섬으로 내재화시켜 가는 것이다. 도미오카와 병든 유키코는 낯선 곳을 향하는 불안함을 억누르며 ‘신세계’로 정의한 야쿠시마에 도착한다. 섬을 직접 취재한 하야시는 다음과 같이 야쿠시마의 첫인상을 적고 있다.

아침, 5시경, 야쿠시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미야노우라라고 하는 곳의 앞바다쪽으로 6시경 도착했지만 여기는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룻배가 손님을 맞이하러 왔다. 갑판으로 나오자 추울 지경이었다. 섬은 생각보다 우뚝 솟아있었고 산들이 검은 비로드를 덮은 듯이 이어져 있었다. 멀리 백사장이 보이고 레이스처럼 파도가 밀려오고 인가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선착장의 바위벽 위에 큰 목재가 쌓여있다. (야쿠시마기행)

朝、五時頃、屋久島が見え始めた。/宮の浦と言ふところの沖合へ六時頃着いたが、こゝは棧橋がないので、小さいはしけが客を迎へに來た。デッキへ出ると寒いくらゐだつた。島は思つたより屹立して、山々が黒いビロードを被たやうに連なつてゐる。遠く白い砂地のなごさが見え、レースのやうに波が打ち寄せて、人家はあまり見えない。船着場の岩壁の上に、大きな材木が積んである。

나는 바다쪽으로 내려가 보았다. 꽤나 가파른 경사의 좁은 돌길을 걸어 해변으로 내려갔다.

파도가 거칠고 백마가 해변을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문득 인간의 때가 타지 않은 경치에는 견딜 수 없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다네가시마에 살고 있는 아사히신문 통신원의 젊은 히다카씨가 한동안 이렇게 섬에 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말한 것을 떠올려 보았다. 갑자기 사람이 그리워졌다. (야쿠시마기행)

私は海の方へ降りて行ってみた。かなり激しい斜面をなした狭い石道を、海ぎはへ下つて行つた。波が荒く、白い馬が海原を走つてゐるやうに見えた。私は、ふつと、人間に觸れない景色にはたへられないやうな淋しさを感じた。種子島に住んでゐる、朝日新聞の通信員の若い日高さんが、暫くかうした島に住んでゐると、狂ほしくなると言つた言葉を想ひ出してゐた。急に人戀しい氣持ちになつて來るのだ。

상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과 원시림이 울창한 야쿠시마의 자연환경은 본문에서도 “일본의 근원적인 자연의 모습”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가는 전후의 파탄되고 모순된 현실을 야쿠시마라는 “자연과의 일체감”이 강조된 곳을 통해서 일종의 정화작용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뜬구름』의 야쿠시마는 전쟁을 남다르게 경험했던 남녀주인공에게 특별한 ‘신세계’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는 도미오카와 유키코가 “전시중의 한 때를 이상화하고 거기에서밖에 살 수 없었던 ‘환상’ 그것이 좌”라고 하며『뜬구름』의 전체적인 ‘어둠’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¹³⁾고 논하고 있다. 달랠을 꿈꾸며 향한 야쿠시마는 산림기사인 도미오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지만 섬의 우울한 기상과 외딴 섬 특유의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은 치명적인 조건으로 그려져 있다. 그럼에도 달랠을 꿈꾸며 일본본토를 떠난 이들에게 섬은 신세계, 혹은 이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 전후의 섬-야쿠시마

야쿠시마가 일본본토와는 확연히 다른 동떨어진 공간이라는 것은 「야쿠시마기행」을 통해 더욱 명료해진다.

힘준한 산벽을 보고 있으니 아무 일도 없는 인적이 끊긴 섬으로 보인다. 천년 가까운 야쿠삼나무가 저 산중에 조용히 서있다. 해안은 연중 온난한 토지로 보이고 어떤 수목도 부부나무처럼 뿌리근처에서부터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자란 것이 많다. 소나무는 본토처럼 굽어진 나뭇가지를 가지지 않는다. 모두 하늘로 뻗어서 빗자루처럼 무성하다. 마을의 아가씨들은 스쳐 지날 때마다 여행객인

13) 川本三郎(2003)『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p.341

우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야쿠시마기행)

嶮岨な山壁を見てみると、何事もない、人跡絶えた島にも見える。千年近い屋久杉があの山中に亭々とそびえてゐるのだ。海沿ひは年中温暖な土地と見えて、どの樹木も夫婦木のやうに、根元から二本に分れて大きくなつたものが多い。松は本土のやうにひねくれた枝ぶりを持たない。みな空へむかつて、箒のやうに繁つてゐる。村の娘達は、すれちがふたびに、旅人の私達に、丁寧にあいさつをして通り過ぎて行つた。

산호초에 둘러싸인 야쿠시마의 밤은 소란스런 도시를 모르는 평화로움이다. 나는 여행 와서 신문도 읽지 않는다. 가지고 온 책도 읽을 기분이 나지 않았다. (야쿠시마기행)

珊瑚礁に囲まれた屋久島の夜は、遠い都會の騒々しさは何も知らない平和さだ。私は旅へ出て新聞も讀まない。持つて來た本も讀む氣がしなかつた。

기차와 자전거도 아직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섬사람들에게 도시의 문명은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스케치를 할 틈도 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제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연필보다 그림도구를 사용하고픈 색채였다. 아이는 그림이 될 생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자애는 맨발로 잘도 일하고 있다. (야쿠시마기행)

汽車や自轉車はまだ見たこともない人もゐるといふ、島の人達に、都會の文明は不要のものやうに思へた。私はスケッチをするひまもない短い間だったが、何時でも描けるやうな氣がした。鉛筆なんかより油繪具をつかひたい色彩だつた。子供は繪になる生々した顔をしてゐた。娘は裸足でよく勤勞に耐へてゐる。

야쿠시마는 “소란스런 도시” “도시의 문명”과는 대비되는, 마치 “인적이 끊긴 섬”처럼 평화로운 장소로 부각된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은 패전의 상흔이나 도시의 삭막함 따위 애초부터 알지 못하는 세계인양 그림같이 평온하고 생생한 것이다. 이것은 밖의 세상은 전쟁의 포화 속인데도 달랠의 공간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던 것과 흡사하게 다가온다. 즉 외딴섬이 가지는 고립과 단절이 묘하게 달랠의 특수한 환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야쿠시마에 희망했던 것도 달랠에서 맛본 격리된 “평화로움”에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후의 피폐함과 어수선했던 도쿄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었지만 일본본토에서 멀리 벗어난, 게다가 최남단의 섬에서는 다시금 두 사람만의 그림과 같은 일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 일말의 기대를 거는 것이다. 이때 야쿠시마는 일종의 실재하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온다. 과연 야쿠시마가 그토록 동경해 왔던 달랠의 구현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도미오카에게는 직업적 소명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이지만, 반면 유키코에게는 여자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새삼 도미오카와 감정이

불타오를 리 만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방증이라도 하듯이 지치고 병든 몸으로 야쿠시마에 도착 한 후 얼마 있지 않아 유키코는 쓸쓸히 홀로 최후를 맞게 된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세계’와 같았던 달랏의 환영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일종의 형벌을 받고 여기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유키코는 여기서 자신은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예감이 들었다. 죽는다면, 단숨에 죽고 싶었다. 이 비는 매일 내릴 비라하고, 이 섬에서의 앞으로의 생활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귀 안까지 비가 내리고 있다. (뜬구름-61)

二人とも、一種の刑罰を受けて、こゝに投げ捨てられたやうな気がして、ゆき子は、こゝで自分は死んでしまふ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予感がした。死ぬのなら、一思ひに死にたかつた。この雨は、毎日降り続く雨だといふ、この島のこれから生活が耐へられさうにもなかつた。じいつと耳を澄ましてゐると、耳の中にまで、雨が降りこんで来る。

꿈속에서 유키코는 미소 지으면서 그 꿈을 쫓아갔다. 이제 두 번 다시 그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당시의 것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도미오카도 유키코도 지금은 이렇게 남쪽 끝의 야쿠시마까지 와 있고 두 사람은 그로부터 몇 살인가 나이를 먹었다. (뜬구름-65)

夢のなかで、ゆき子は、微笑しながら、その夢を追つかけてゐる。もう、二度と、あの青春は戻つては来ないのだ……。あの当時のまゝのものはもう帰らない。富岡も、ゆき子も、いまは、かうして、南の果ての、屋久島まで来てゐるのだけれども、二人は、あの時から、幾年か年を取つてゐた。－

남녀주인공에 관하여, 앞서 하네야 미즈키(羽矢みずき)는 “인도차이나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상실하고 야쿠시마에 표상된 전후세계”¹⁴⁾로 내몰린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찾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야쿠시마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서 일본본토에서 쫓겨나가는 죄인의 이미지를 읽고 있다. 하네야의 분석대로 달랏이 파라다이스의 표상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야쿠시마가 전후세계를 대표하고 이상향의 바깥이라는 해석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도망치듯 떠난 일본본토와 새로운 희망을 품고 향하는 야쿠시마는 각각 이질적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쿠시마가 “전후 세계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패전하의 일본본토를 초월하고 싶은 의지의 상징이며 남쪽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의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주인공은 “낙원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라, 전후의 피폐한 도교를 벗어나

14) 羽矢みずき(2005)「<虚無>からの再生を求めて—林芙美子『浮雲』論Ⅱ」『日本文学論叢』第五号、立教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日本文学専攻、p.110

달랏과 같은 새로운 “낙원”을 야쿠시마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뜬구름』마지막 부분에서 도미오키는 유키코를 “아이 같은 환영”을 품고 살아온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키코의 강인함은 “달랏의 꿈을 믿고 아직도 그 환상을 가지고”¹⁵⁾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씩씩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은 행복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녀가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떠났던 달랏에서 누릴 수 있었다. 그곳에서 도미오카와의 사랑은 보호받았고 생애 처음으로 주목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달랏은 특별한 공간이 되며 그곳에서의 시간은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으로 귀환한 뒤에도 유키코는 달랏에서의 자신을 환영처럼 떠올리며 현실을 버티며 살아갔다. 밖의 전쟁 속에서도 지상낙원이었던 달랏은 현실감이 없을 법하나, 오히려 전쟁이라는 비밀상적 상황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현실감을 획득해 간 것이다. 반면, 유키코가 돌아온 패전한 일본의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반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벅찰 지경이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최남단 야쿠시마란 곳이 비가 잦고 의사도 없는 오지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굳이 야쿠시마에 ‘신세계’라는 희망을 투영시키고 있었던 것은 패전하의 현실을 목격하고 체험한 뒤 생긴 ‘절망’이란 것의 역설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초월적 소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키코는 야쿠시마에 도착한 후 며칠 만에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벗어나 또 다른 의미의 ‘신세계’로 초월해 갔다. 한편 도미오키는 그녀의 죽음으로 비로소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다.

『뜬구름』의 결말에 관하여 간다 유미코(神田由美子)¹⁶⁾는 “베트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야쿠시마”를 거론하며 두 사람이 사별을 통해서 “전쟁 중 중국, 남방으로 침략했던 일본과 그곳으로 향하며 식민지정책에 협력한 하야시 후미코 본인의 속죄와 그 죄를 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꿈같은 사랑의 나라”를 꿈꾼 “자신을 별하는 도덕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해석은 아래의 일본이 시작한 전쟁과 패전의 결과를 비판적이면서 냉정하게 수용하고 있는 남녀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인도차이나에서의 생활은 여수(旅愁)로 생각될 만큼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인간은 그때부터 누구라도 착해지듯이,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본군대의 독재정권 속에서 무엇 하나, 자유스런 고독은 허락되지 않았다. 정신의 메마름으로 인해 유키코의 몸을 찾은 자신의 방종이 오늘 여기에 그

15) 川本三郎(2003)『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p.341

16) 神田由美子(2014)「ベトナムと屋久島—『浮雲』の旅—」機関誌「浮雲」第6号、林芙美子会、p.6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미오카는 보상의 기분을 담아서 강하게 유키코의 손을 잡고 있었다. (뜬구름-58)

だが、いまから考へてみると、仏印での生活は、旅愁なぞといふ生やさしいものではなかったやうだ。死刑を宣告された人間が、その時から、誰にでも、物優しくなるやうな、そくそくとした淋しさで、人の心を恋ひしがつてゐたやうなものだつた。日本軍隊の、独裁政権のなかで、何一つ、自由な孤独を許されなかつた、精神の乾きを、ゆき子の軀によつて求めた自分の身勝手が、今日、こゝにその結果をもたらしたのだと、富岡は、償つぐなひの気持ちをこめて、強く、ゆき子の手を握り締めてゐた。

그 작은 라디오에 눈이 가자, 도미오카가 댄스곡이라도 들려 달라고 말했지만, 유키코는 일부러 다이얼을 전쟁재판 쪽으로 돌렸다. 2세의 발음으로 “귀하, 그 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정중한 말투가 라디오에서 흐르자, 도미오카는 그런 라디오는 가슴이 아프니까 미국 재즈라도 들려 달라고 졸랐다. 유키코는 언짢아하며 말했다.

“저와 당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재판에는. —저도 이런 재판 따윈 듣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현실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전쟁이란 것의 생태를 들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뜬구름-63)

その、小さいラジオを眼にとめて、富岡が、ダンス曲でも聴かせてくれと云つたが、ゆき子は、わざとダイヤルを戦争裁判の方へまはしたものだ。二世の発音で、「貴下あなた、その時、どうお考へでしたか?」といった丁寧な言葉つきが、ラジオから流れると、富岡は、そんなラジオは胸が痛いから、アメリカのジャズでも、聴かしてくれとせがんだ。ゆき子は、むかつとして云つた。

「私や貴方もふくまれてゐるのよ、この裁判にはね。—私だつて、こんな裁判なんて聞きたくないけど、でも、現実に裁判されてゐる人達があるんだと思ふと、私、戦争つてものの生態を、聴いておきたい気がするのよ」ゆき子は、ジョウと知りそめた時が、十年も昔のやうな気がした。

도미오카는 “자유스런 고독”조차 허락되지 않는 전쟁의 극한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로 인한 “정신의 메마름”이 유키코와의 잘못된 관계를 만들고 말았다고 술회한다. 한편 유키코는 전쟁 재판의 뉴스를 들으며 전쟁책임은 전쟁을 위해 외지에 나갔던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전쟁이란 것의 생태”를 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미오카도 유키코도 전쟁을 겪었고 또한 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이상향 달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곳은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있을 법하지 않은 공간으로 묘사된다. 즉

달랏은 전쟁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기루”라고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전쟁이 아니었으면 달랏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평온함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달랏이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은 이러한 전쟁이라는 배경이 가져다 준 아이러니인 것이다. 그러므로 달랏의 현실적 구현으로 대체되는 야쿠시마 역시도 전쟁 혹은 패전으로 파생된 “신세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하야시는 전쟁에 협력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전쟁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몸소 체험한 작가 이기에 본문에서 “패전은 일본이 빛을 갉아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이 꿈꾼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세계관이 붕괴된 후, 피폐하고 삭막한 환경 속에서 치유의 특별한 공간을 회구하고 동경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작가에게 ‘야쿠시마’야말로 가장 적합한 공간적 배경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야시는 1 년 반에 걸친 『뜬구름』연재가 끝난 2개월 후에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만다. 이것은 ‘신세계’라고 생각한 섬 야쿠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유키코의 모습에도 닮아 있다. 그렇기에 일본이 구현하고자 했던 ‘헤테로토피아’는 마치 작중의 귀환자들의 운명처럼, 혹은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 지도 모르게 사라져가는(何時、何處かで、消えるともなく消えてゆく)” 뜬구름처럼 덧없고 요원하게 다가온다.

이와 같이 남녀주인공이 달랏의 구현으로 대체했던 야쿠시마는 현실의 섬이기는 하나 이상향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이 될 수는 없었다. 결국 전쟁이 만들어낸 헤테로토피아는 신기루처럼 그저 공허한 뜬구름에 불과한 것이었다.

4. 나오는 말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일본편』(김영사, 2003)에서는 일본인이 ‘화(和)’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것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밖으로의 탈출도 용이하지 않은 ‘섬나라’라는 지형적 환경이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만들어 냈으며 의식체계까지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예전의 ‘섬’은 일반적으로 고립된 장소의 이미지로 유배지의 기능이 강했다. 하지만 현재는 일상으로부터 일탈의 장소, 휴양지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현실적 ‘섬’에 관한 한 이미지의 전복이 엿보이며 시공간에 따라 인식 또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후에 발표된 하야시 후미코의 『뜬구름』과 「야쿠시마기행」을 중심으로 전쟁의 가해국이면서 패전국이 된 일본이 구현하고자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 ‘섬’은 어떤 곳인지를 고찰하였다. 상기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섬 ‘야쿠시마’는 전쟁으로 더 이상 나갈 항로를

갖지 못한 경계(한계)의 섬이자 동시에 전쟁의 상흔과 문명의 세계와는 격리된 대자연의 원시적 공간으로 대표된다.

『뜬구름』의 유키코와 도미오카는 바깥의 전쟁과는 상반된, 일종의 육지 속 ‘섬’과 같은 평화로운 달랠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패전한 일본으로 인양된 후는 힘들고 추운 시절을 견뎌야 했다. 달랠은 유키코에게 도미오카와 함께한 행복했던 공간으로, 도미오카에게는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직업적 가치와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공간으로 부조된다. 그런 그들이 전후 일본으로 귀환한 뒤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냉엄했다. 결국 두 사람이 도피하듯 가게 된 최남단의 섬 야쿠시마는 평소 달콤한 꿈에서 등장하는 ‘달랠’과 흡사한 인상으로 내재화된다. 어쩌면 외딴 섬 야쿠시마는 달랠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목하며 살 수 있는, 혹은 각자 꿈을 꿀 수 있는 또 다른 낙원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야쿠시마는 잦은 비와 고립된 지형으로 신세계로서의 안이한 이상향의 이미지를 단호히 거부한다. 즉, 현실에서 도망쳐 도착한 곳에 현실적 ‘낙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녀주인공이 회구했던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섬은 패전한 일본의 현재를 표상하듯 한계(경계)와 상실감으로 부상되어 오는 것이다. 요컨대 야쿠시마는 전후 일본의 단면이며 자신들의 지상낙원을 꿈꾸며 전쟁으로 치달려간 일본, 그 허황된 꿈의 현재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 川本三郎(2003)『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p.341
 神田由美子(2014)「ベトナムと屋久島—『浮雲』の旅—」機関誌「浮雲」第6号、林芙美子会、p.6
 内藤高(2005)「トボスとしての島」『大阪大学大学院研究科紀要』45号、p.17
 羽矢みずき(2005)「<虚無>からの再生を求めて—林芙美子『浮雲』論II」『日本文学論叢』第五号、立教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日本文学専攻、p.109、p.110
 福田珠己(1991)「場所の経験：林芙美子『放浪記』を中心として」『人文地理43-4』人文地理学会、pp.269-281
 牧野陽子(2002)「熱帯の幻影—林芙美子『浮雲』について—屋久島、仏領インドシナ戦後日本—」『成城大学経済研究』第158号、成城大学経済学会、p.434
 미셸 푸코, 이상길 역(2014)『헤테로토피아』문학과 지성사, p.47

논문투고일 : 2018년 06월 19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08월 04일
 2차 수정일 : 2018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6일

 <要旨>

전후일본문학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의 ‘섬’

- 야쿠시마(屋久島)를 중심으로 -

최은경

본고에서는 전후에 발표된 하야시 후미코의 『뜬구름』과 『야쿠시마기행』을 중심으로 전쟁의 가해국이면서 패전국이 된 일본이 구현하고자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 ‘섬’은 어떤 곳인지를 고찰하였다. 상기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섬 ‘야쿠시마’는 전쟁으로 더 이상 나갈 항로를 갖지 못한 경계(한계)의 섬이자 동시에 전쟁의 상흔과 문명의 세계와는 격리된 대자연의 원시적 공간으로 대표된다. 『뜬구름』의 유키코와 도미오카는 바깥의 전쟁과는 상반된, 일종의 육지 속 ‘섬’과 같은 평화로운 달랠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패전한 일본으로 인양된 후는 힘들고 추운 시절을 견뎌야 했다. 달랠은 유키코에게 도미오카와 함께한 행복했던 공간으로, 도미오카에게는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직업적 가치와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공간으로 부조된다. 그런 그들이 전후 일본으로 귀환한 뒤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냉엄했다. 결국 두 사람이 도피하듯 가게 된 최남단의 섬 야쿠시마는 평소 달콤한 꿈에서 등장하는 ‘달랠’과 흡사한 인상으로 내재화된다. 어쩌면 외딴 섬 야쿠시마는 달랠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목하며 살 수 있는, 혹은 각자 꿈을 꿀 수 있는 또 다른 낙원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야쿠시마는 잦은 비와 고립된 지형으로 신세계로서의 안이한 이상향의 이미지를 단호히 거부한다. 즉, 현실에서 도망쳐 도착한 곳에 현실적 ‘낙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녀주인공이 회구했던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섬은 패전한 일본의 현재를 표상하듯 한계(경계)와 상실감으로 부상되어 오는 것이다. 요컨대 야쿠시마는 전후 일본의 단면이며 자신들의 지상낙원을 꿈꾸며 전쟁으로 치달려간 일본, 그 허황된 꿈의 현재이기도 한 것이다.

The island of Heterotopia in Postwar Japanese literature

- Focus on “Yakushima” -

Choi, Eun-Kyung

In this study, it was considered that the space ‘island’ of ‘Heterotopia’ is what kind of place it is and that Japan, It was centered. “*Ukigumo*” and “*Yakushima Kiko*” by Hayashi Fumiko, released after the Pacific War. The island ‘Yakushima’ that emerged from the above works is represented by the primitive space of nature, isolated from the scars of war and the world of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an island of boundaries that did not have a route to war anymore. Yukiko and Tomioka spent a warm time in the peaceful Dalat of the island, a kind of land opposite to the war outside. However, after being defeated in the defeated Japan, it had to endure hard and cold days. Dalat is a happy space with Tomioka to Yukiko, and it is expressed to Tomioka as a place where he could demonstrate his professional value and presence in the nature. The reality that they faced after returning to Japan after the war was so harsh and cold. In the end, the island of the southernmost part of the island, Yakushima, where two people went as if they were, is regarded as an impression similar to ‘Dalat’ appearing in a sweet dream. Maybe it is because the remote island of Yakushima, like Dalat, was thought to be another paradise where two people can live with each other or each can dream. However, the reality of Yakushima strongly rejects the image of the ideal of the new world as frequent rain and isolated terrain. In other words, there was no actual ‘Paradise’ where we got away from reality. The island as a ‘Heterotopia’ that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sought is emerging as a boundary and a feeling of loss as if they represented the current defeat of Japan. In short, Yakushima is a cross-section of postwar Japan, Japan is dreaming of a paradise on earth, and now is the present dream of a dream.